

【새로운 체제 아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오카야마 시청도 인사이동을 거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의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메일 매거진에서는 다음의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오카야마시가 앞으로 특히 중점을 두는 분야인 지역 경제 활성화와 마을의 활성화, 육아 환경의 충실 등을 담당하는 3국의 인원을 18명 증원하고 각각의 활동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재정 국장에 그 분야의 전문 직원을 기용한 것입니다. 과거에 국가의 요청에 따라 1년만 전문 직원이 재정 국장에 오른 적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오카야마시로서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카야마시가 정령 지정 도시가 되어 7년이 지났고 앞으로의 재정 국장 포스트는 행정 전체를 통괄하는 배려심 있는 오카야마 인간이 맡은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이번 인사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여성의 등용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시장 취임 이후 오카야마의 더욱더 큰 비약을 위해서는 여성 직원의 한층 더 큰 활약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여 여성직원의 적극적인 등용과 다양한 직무의 배치를 추진해, 이번 인사이동으로 시청 내의 관리직 전체 중 여성관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취임 당시 6.5%에서 9.5%로 상승했습니다

취임 초기에는 「롤 모델」로 극히 일부 여성직원만이 관리직에 등용되었지만,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약 10%까지 늘어난 것으로, 강력한 여성층이 형성되어 상당히 깊이를 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래 50대의 사무직 여성직원의 비율은, 2015년 4월 1일 현재 13.7%로 주로 관리직을 맡을 연령층의 여성 직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가운데에 있었고, 이번 여성 관리직 비율을 9.5%까지 끌어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여성의 육아 휴직 기간을 근무 기간으로 간주하는 등의 제도 재검토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성이 더욱 활약하므로 시청 근무의 질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이번 인사이동에 있어서 3개의 큰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체제 아래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민을 위해 즐기면서 건강하게 일하는 활력있는 조직 만들기를 진행하는 가운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로 약동하는 모모 타로의 마을 오카야마」의 실현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